

불꽃같은 iOS 개발자 “김지훈”을 소개합니다.

개발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

제가 개발을하기로 결심한 첫 계기는 생계를 위해서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벌고 싶었고, 돈을 모아 당시 만나고 있던 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의 성향과 잘 맞고 미래지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한 개발자가 되어보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험하게 된 JAVA 국비과정의 시간은 저에게 개발에 대한 재미있고 흥미로운 기억들을 남겨주었고, 이를 계기로 취업을 하여 개발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에게 필요했던 생계를 채울 수 있었고, 결혼 또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 자신을 돌아보면 **개발자**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전산병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또한 국비지원 과정과 IT 분야에 취업하여 일하는 과정을 되돌아보았을 때 스스로가 발전하고 성장한 것을 보면 제가 자연스럽게 살아온 삶이 개발자가 되기 위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계를 넘어서 개발자로서 **더 분명해진 목표와 비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발을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 이유와 부가적인 목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발 업무와 관련된 경험

1. 리아컴즈 3개월 인턴관정

웹북 뷰어 개발 : 3개월간 epub 이라는 국제표준 e-book 을 Reading 할 수 있는 웹/앱 프로토타입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인턴이었지만 개발자가 3명 밖에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개발자로서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개발을 하기 위해 먼저 라이선스 문제가 없는 오픈소스들을 찾은 결과, 프론트엔드 쪽은 javascript 오픈소스를 활용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백엔드 구성은 mySql 및 Java 및 spring으로 구성된 서버까지 주도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epub 마켓에서 파일을 불러와서 웹브라우저 및 모바일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읽을 수 있게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2. 오픈메이트 2년 5개월 (수행했던 일부 내용이 GitHub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유지보수 : 오픈메이트에서 1년간 데이터 및 웹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유지보수는 고객사의 DB에 회사 데이터를 Truncate 후에 Insert 하고, 프로시저, 조인 및 업데이트 쿼리를 통한 데이터 최신화 작업을 하였으며, 고객에 납품되어 있는 백엔드 및 프론트엔드 웹어플리케이션을 고도화 및 유지보수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LH공사 온나라 3.0 프로젝트 : 빅데이터 및 부동산통계 파트개발자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LH공사 프로젝트는 2.0 포털사이트를 3.0으로 고도화하는 1년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진주에서 상주하며 개발을 수행하였고, 제가 맡았던 부분의 요구사항으로는 하둡으로 구성된 데이터 수집공간의 마련과 부동산통계 시스템 개발 그리고 관리자 화면 개발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용 기술로써 html, css, jquery, Java, Spring, 클라우드라 하둡 설치, LH공사에서 필요한 DB데이터를 크롤링 및 Sqoop하기 위한 python 스크립트 등을 사용하였으며 관련된 산출물 및 문서 작업까지 완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메이트 IDC 이전 : LH공사 프로젝트 마무리 후 본사에 복귀하여 회사 인프라를 재구축 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사 IDC센터 통합 및 노후 장비 정리 및 신규장비 구축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IDC 이전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관련된 업무로는 도메인, 네임서버 및 호스팅 관련 업무부터 하드웨어 인프라 도입 및 신규 인프라(WEB/WAS) 구축, DB 이전으로 인한 DB 데이터 이관 및 마이그레이션, 서버 이전으로 인한 개발소스 수정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성격과 특징에 대한 소개 (다른 사람이 본 제 모습에 대한 추천서가 GitHub에 있습니다!)

1) 준비성과 계획성

저는 28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흔히 이 말을 하면 제가 금수저가 아닌지 묻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을 준비하며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결혼을 하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집을 구하는 일부터 혼수, 식장,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심지어 예물과 예단에 대하여 부모님과 대화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 등을 준비하는 것은 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편적인 사례로 설명했지만, 결혼 뿐 아니라 저는 제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계획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2) 낙천주의와 열정

저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불꽃남자”** 입니다. 항상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저는 이러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격입니다. 또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낙천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고, 제 인생의 좌우명은 **“긍정적으로 살자”** 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구구절절이 설명하기 어려운 낙심될 만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사회에서 빠тол어지지 않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은 세상을 낙천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 때문입니다.

3) 커뮤니케이션 능력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반장을 해왔고, 짧은 시간의 전문대에서는 과대표를 했으며, 군대에서는 분대장, 그리고 20살부터 현재까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항상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을 파악해서 듣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려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배우는 자세로 듣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발자입니다.

하고 싶은 일 & iOS 개발자를 하려는 이유

프로그래머로써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에 기여하는 개발자”** 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iOS개발입니다. 3년 조금 안되는 기간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였지만, IT에서 처음 실무를 하는 순간부터 다양한 업무를 통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진지하게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iOS 모바일 서비스를 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역량이 있지만, 이것을 밑거름으로 훌륭한 iOS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iOS 개발자로서 세상에 기여하는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소양과 더불어, 인문학적인 요소 또한 균형있게 잘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다양하게 소개 하였듯이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주어진 개발에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하며, 긍정적인 자세로 열정을 갖추고, 겸손하게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

이것이 제가 잘 해낼 수 있는 일이며, 세상에 기여하는 개발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